

BIE 회원국 120개로 급증

27일 최종 투표 앞두고 회원 가입 줄이어... 막판 변수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19일로 8일 남은 가운데 오는 27일(한국시각) 최종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여할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 가입국이 줄을 잇고 있어 여수엑스포 유치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개최지 결정일을 9일 앞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이상 중동), 온두라스(중남미), 몰디브, 스리랑카(이상 아시아), 가나(서아프리카) 등 6개국이 BIE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은 모두 120개국이었다.

BIE 회원국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98개국에 그쳤으나 최근 모로코를 중심으로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 9~10월에만 지부티, 콩고, 니제

르, 코모로, 파테말라, 가봉 등 9개국이 가입하는 등 최근 5개월 새 무려 22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BIE 회원국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개최지 결정일인 27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최근 가입국들은 목시적으로 특정 후보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추가 가입국들이 오는 27일 파리 총회 투표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위원회는 특히 아프리카권 30여 개 국가가 아직까지 BIE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경쟁국인 모로코가 막판에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BIE 회원국에 가입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책을 세워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모로코가 막판에 종교적, 정치적 유대 관계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상당수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BIE 회원국을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36개국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남미 28개국, 아프리카 20개국, 아시아 15개국, 중동 12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등이다.

한편, 2012 세계박람회 개최국으로 결정되려면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제142차 총회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차 투표 때 득표를 많이 한 두 나라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모로코·폴란드 등 3개국이 결합하고 있는 유치권 관세는 우리나라가 모로코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득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 직전까지 모로코의 BIE 회원국 추가 가입 움직임을 견제하고 회원국이 가장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실한 2차 투표 대비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2012 여수엑스포 유치의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회창 후보 5·18 묘역 참배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현화·분향한 뒤 무명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현화·분향한 뒤 무명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昌“DJ 업적 평가해야”

“남북 대화 물꼬 터”... ‘국민 속으로’ 광주 방문

‘국민 속으로 전국 투어’를 벌이고 있는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가 18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며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5·18민주항쟁 추모탑에 현화·분향하고 무명열사 묘역 등을 둘러본 뒤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묘역을 찾은 것은 의미가 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5·18묘지 참배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각각 한나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대선에서 한 번도 호남유권자로부터 5%를 넘는 지지를 받지 못한 이 후보에게 호남은 말 그대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최대한 정치색을 줄이고 호남에 대한 애정과 개인적 인연 등 과거 일화를 들어가며 ‘인간 이회창’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희망한국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약무호남 시무국

가(若無湖南 是無國家·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는 없어졌다)라고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광주·전남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막혔던 한반도의 대화의 물꼬를 튼 의미가 있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이 빨리 조사해서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빨리 알려 해당후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는 이어 곡성군 옥곡면 선세리에 위치한 외조부의 산소를 찾은 뒤 광주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 후보는 이어 앞서 이날 오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 대학생 20여명과 대화를 나눴다.

한편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300여 명이 나와 광주 방문을 환영했으나, 광주전남지역총학생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은 ‘수구꼴통 세력 대선으로 심판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쳐 뿌리 깊은 반대 정서가 교차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특별기고

오현섭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 오는 21일 정부 대표단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출발에 앞서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광주·전남 시·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시각으로 11월27일 새벽 3시,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여수 코리아’가 발표되고 승리의 함성이 이곳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정부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수에서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 때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발휘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휴일을 반납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84개 분과위원회도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지난 4월 동유럽을 시작으로 남미, 서유럽, 북미, 러시아 등 10개국을 방문하는 등 지구를 세 바퀴 돌며 엑스포 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치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6월, 제141차 BIE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여수 프로젝트와 여수선언’을 발표하면서 3천만 달러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4월 BIE실사 때 여수를 방문, 박람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11월12일 BIE회원국에 보낸 여수세계박람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코리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2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 대표단의 마지막 유치활동이 이뤄집니다. BIE총회가 열리는 26일과 27일에는 국민참가단 300여명이 현지에서 뜨거운 유치 응원을 할 것입니다.

여수시민들은 매일 정오 음변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안내방송에 맞춰 1분간 ‘소망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거리에는 엑스포 배너 기가 붙들리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종파를 초월하여 철야기도를 하는 등 모든 시민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2002 월드컵 때 전 세계인에게 감탄과 감동을 줬던 열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월 27일 새벽, ‘여수 코리아’가 발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 반드시 ‘여수 코리아’의 승전보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장>

“여수 코리아” 그날까지 열정 불사르자

-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마지막 유치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지니고 있는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가 해양관광과 해양산업,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2012 엑스포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결정하고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민들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모두가 한마음 혼신의 노력

BIE 실사 때는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여수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 실사단과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시민 모두가 성금을 모아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인류애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시민정신도

교회연합회 긴급기도회

어제 여수시청 앞...“성공적 유치 염원”

2012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기도회가 18일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수지역 교회 목회자와 신도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여수교회연합회 주관으로 긴급기도회를 갖고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염원했다.

이날 기도회는 여수은교교회 고만호 목사의 기도와 성가대 찬양,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의 설교, 김종현 목사와 주정철 목사의 유엔과 BIE(세계박람회기구)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순으로 열렸다.

특히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유엔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012년 세계박람회가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냉전지역인 대한민국의 여수에서 개최된다면 남북화해와 세계 평화증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www.miz25.com

광주·전남북 가맹점 모집

신발이 아닌 건강을 신는다! SRD

세계가 인정된 대한민국 대표 기능성 건강 슈즈!!

일등 가맹! 일등 품질! SRD가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1544-6780

문의전화 062) -672-6700